

젠슨 황 장녀가 먼저 다녀간 두산로보틱스, 엔비디아와 협업 강화 전망

등록 2026.06.02 10:51:56 | 수정 2026.06.02 14:58:05



[서울=뉴시스] 김민표 두산로보틱스 대표와 매디슨 황 엔비디아 수석 이사가 29일 경기도 성남시 두산로보틱스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대화하는 모습. (사진=두산로보틱스) 2026.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한국 로보틱스 기업들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두산로보틱스와 엔비디아의 협력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미 양사는 로보틱스 분야 협력에 나선 상태로, 향후 협력 확대를 꾀하며 로보틱스 기술 주도권을 강화할지 주목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1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한 '코리아 파트너스 나이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네이버클라우드, 두산로보틱스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CEO는 이번 행사에서 한국 로보틱스 기업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로보틱스가 한국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엔비디아가 한국 로보틱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 CEO의 발언으로 두산로보틱스와 엔비디아의 협업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양사는 로봇 분야 협력 관계를 구축한 상태다.

지난 4월 말 황 CEO의 장녀인 매디슨 황 엔비디아 옴니버스 및 로봇틱스 제품 마케팅 수석 이사가 경기도 성남시 두산로보틱스 이노베이션 센터를 방문하면서 양사 협력은 더 구체화됐다.

두산로보틱스가 개발 중인 로봇 전용 실행 소프트웨어 에이전틱 로봇 운영 체제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로보틱스 시뮬레이션·학습 인프라를 연계하는 내용이다.

이를 토대로 양사는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로봇 실행 플랫폼을 구축한다.



[타이베이=AP/뉴시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1일(현지 시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정보기술(IT) 박람회 '컴퓨텍스 2026'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컴퓨텍스 2026'은 2일부터 5일까지 열린다. 2026.06.01.

두산로보틱스는 엔비디아와의 협력으로 로봇 운영 체제를 고도화하고 2027년 에이전틱 로봇 운영 체제 기반의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후 2028년 산업용 휴머노이드 제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두산로보틱스는 엔비디아와 2027년에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를 비롯한 주요 전시회에서 협업 결과물도 발표할 예정이다.

그만큼 양사가 로봇틱스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오는 4일 방한하는 황 CEO와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의 회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두산로보틱스가 엔비디아와 로봇 분야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황 CEO의 장녀인 매디슨 황 이사가 지난 4월 방한 당시 두산로보틱스를 방문한 것은 양사 협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n88@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